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제2022-7호
(4월 14일 발행)

발행처: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집필:꿈진집필위원단

[학교 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결과의 이해와 활용법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대학진학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95만여 명을 대상으로 3월 24일(목)에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앞으로의 입시 전략을 세우고,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이라도 조급한 마음보다는 틀린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능 전까지 실수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2 겨울방학 동안 목표했던 학습의 성취 정도 및 학습 역량 점검
2. 기존 학습 방법의 성찰 및 앞으로의 학습 방향 설정의 기준
3. 자신의 대학입학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
4. 전국 고3 학생들 중,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

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후의 전략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위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시험으로 대학입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입시의 성공 여부는 자신의 실력 및 전체 수험생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적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남은 기간의 대입준비 전략 및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후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인해 자만심을 갖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저조한 성적 때문에 '수시 올인' 전략으로 급선회하려는 모습이나 수시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하며 수능 대비를 다소 게을리 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시 비중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수능 준비를 포기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입시 전체의 선택지를 스스로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2) 수험생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수능 영역별 등급 관리 또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성적표의 백분위 점수는 학생이 수시모집 전형에서 지원을 고려해야 할 대학의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므로, 평소에 치르는 모의고사 성적을 잘 관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3) 고3 수험생들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점수와 1, 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을 비교해보면서 희망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중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평소 교과 성적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보다 잘 나오는 경우라면 3학년 1학기 지필평가 대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후 학습 방법

- (1) 과목별 성적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취약과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하며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중-장기 목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자만하기 보다는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문항의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풀었던 것인지 체크하고 넘어가야 실제 수능에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우연히 문제를 맞힌 것이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보며 기본에 충실한 학습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목을 선택하는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난이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능이 어려웠다고 난이도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기본 학습을 충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틀린 문제를 점검하며 그 내용을 오답노트 등을 활용하여 꼼꼼하게 다질 수 있다면 실제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3) EBS 연계율이 하향 조정되었다 해도 수능 문제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가 EBS 수능교재와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재 내용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과목별 출제 경향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능과 같이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방식으로 치러졌고, 탐구 영역(사회·과학)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국어영역은 전반적으로 2022학년도 수능보다 쉬웠던 반면, 수학영역과 영어영역은 다소 어렵게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1) **국어영역**은 2022학년도 수능보다는 대체로 쉽게 출제됐습니다. 영역별 지문 구성 방식이 2022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됐습니다. 다만 문학에서 수필과 복합 지문을 현대시에서 고전시가로 대체해 출제했습니다. 2022 수능과 비교해 특이한 문항은 없었지만, 세부정보를 이해하는 문제와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는 풀기에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수학영역**은 전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했습니다. **공통과목의** 난이도는 2022수능과 유사했지만, 2학년 때 실시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보다 고난도 문항의 개수가 늘어나, 수험생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영어영역**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쉽고, 작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비슷한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듣기 문제도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고, 지문의 소재가 문화, 예술, 사회, 교육, 언어, 과학 등 다양하게 출제됐으며, 필자가 말하려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출제됐습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4.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어떻게 활용할까?

- (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험생 자신의 전국단위 위치를 진단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학생끼리의 비교입니다. 졸업생 등 N수생의 결과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진단하되, 졸업생이 포함되었을 때의 변수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졸업생이 합류하는 6월 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성취도 결과가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 (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한 것에 비해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1년 동안 힘든 수험생활을 해야 할 재학생들은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졸업생이 제외된 전국단위 위치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며 그만큼 철저하게 취약점을 분석하고, 반드시 보완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또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를 통해 설부른 수능 난이도 예측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 (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를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며, 틀린 문제와 맞았으나 확신이 없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과목별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짚고,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내신 성적만으로 수시전형 전략을 세우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신이 정시모집에서 어느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이후에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등 어느 전형에 적합한지 꼼꼼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본격적인 진학을 위한 수험생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대학입학을 향한 한 걸음을 시작했다는데 의의를 두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전형 설계의 시작이며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수험생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기회로 삼고 계획성 있게 학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과 같이 이미 여러분은 대학 생활의 준비를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1.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2. EBSi홈페이지-[입시정보]-[3월 30일자 기사]
3. 내일신문기사-[4월 7일자 뉴스기사]
4. 유웨이, 진학사 대입 연구 내용 발췌

[학교 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